

취업 청년 1인가구의 돌봄노동에 대한 경험*

Study on the Young working single-person households' experiences
of everyday caring activities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 수 송혜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강사 강은주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Professor Song, Hyerim
Depf.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Lecture Kang, EunJu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이 연구는 취업 청년 1인가구의 일상적인 돌봄노동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1인가구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가족자원경영학 분야는 오랫동안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연구해 온 바, 이 연구는 1인가구의 일상적인 돌봄노동 경험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가족자원경영학에서 1인가구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22년 8월, 취업한 상태의 청년 1인가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날마다 수행하는 돌봄노동의 특성, 돌봄노동 수행의 경험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주제는 첫째, 1인가구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1인가구로 살게 된 동기와 자발성, 1인가구로 산 기간,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일상적인 돌봄노동 수행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갖게 된 경험에 주목하여 새로운 발견, 돌봄노동의 의미에 대한 해석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1인가구로 살면서 혼자 수행하는 돌봄노동을 통해 돌봄노동이 독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주체성, 자부심, 책임감 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돌봄노동을 통해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의 경험이 함께 발견되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1인가구를 주제로 한 후속연구에의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취업 청년 1인가구, 돌봄노동 경험, 사례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everyday caring activities of young working single-person households. To collect the data, we interviewed 10 worki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 topics are composed of 3 parts: 1) the everyday life of single-person households; 2) caring activities and household labor; 3) the experience of caring activ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In comparison with families living together, single-person households carry out everyday caring activities alone, so they found a new meaning in caring activities and household labor. In particular, they were ful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everyday caring activities even

*이 논문은 2022년 울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번호 2022-0441)에 의해 수행된 연구의 결과임.

**주저자, 교신저자 : 송혜림(hrsong@ulsan.ac.kr), <https://orcid.org/0000-0002-3648-1921>

though they sometimes felt the caring activities were uncomfortable. On the other hand, they improved their technique and ability for caring activities, and they felt satisfied with the caring activities. We found the meaning of everyday caring activities to be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 independence of single-person households.

Key words: single-working household, caring activities, case study

I. 서론

최근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1인가구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여러 학문분야마다 세부주제, 연구방법, 결과의 해석과 제안 등의 차원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바, 생활과학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자원경영학의 관점과 접근법을 반영한 1인가구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사와 돌봄, 여가, 시간배분, 일생활 균형, 가정경영과 가족자원관리, 생애설계 등의 주제를 통해 가족자원경영학 분야가 1인가구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한 관점 그리고 1인가구 연구에서의 전문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강조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취업 청년 1인가구의 돌봄노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돌봄노동은 날마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산노동으로서, 1인가구의 삶은 자기돌봄에 집중되어 있다.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은 곧 돌봄노동 수행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돌봄노동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취업 청년 1인가구의 삶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취업집단의 경우 일상적인 삶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취업한 청년세대 1인가구의 돌봄실태 그리고 경험에 대한 분석은 취업생활과 대비되는 재생산 영역에서의 경험과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인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서 각 세대별로 그 특징과 일상생활의 실태가 다른데, 본 연구는 그 중에서 청년 1인가구의 돌봄노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청년세대가 1인가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주된 동기는 학업이나 직업으로 나타나며 연령과 세대의 특성상 다른 세대에 비해 일상적인 돌봄노동을 혼자 수행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송혜림, 2020a). 청년 1인가구가 혼자 사는 삶을 시작하면서 수행하게 된 자기돌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돌봄노동의 의미 그리고 1인가구가 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새로운 인식 등을 포착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30대 미혼 1인가구의 일생활 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송혜림·강은주, 2021)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일생활 관련 연구에서 일과 대비되는 생활의 영역 중 주로 여가생활이 부각되기 때문에 다른 생활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청년 1인가구의 돌봄노동 경험에 대한 분석

은 청년 1인가구의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돌봄노동은 가사노동과 함께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주제이다. 일상적·세대적 재생산 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가사노동의 수행방식은 기술과 시장의 변화와 함께 달라지고 있으며 산업화나 기계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는 일상생활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맞물린다. 그런 면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연구는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는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가족자원관리학 분야에서 1인가구에 대한 연구를 조망한 선행연구(서지원·송혜림, 2018)에서는 일상적 가사노동과 자기돌봄, 시간자원의 사용과 배분, 여가 등을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된 연구 주제로 부각되는데, 특히 일상적인 가사와 돌봄에 관하여, 혼자 살림을 꾸리는 1인가구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자기돌봄의 수행방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한편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은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사용되는 경향도 함께 보인다(송혜림, 2021)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으로 구분하여 가사노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경우 서비스 내용에 대한 기준에서는 돌봄과 가사를 구분하지만, 실제적으로 돌봄에 수반되는 세부적인 가사의 내용들이 추가되고 있다¹⁾. 가정관리학 및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는 1950년대 가사작업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가사노동의 관리, 시간, 가치평가, 사회화, 태도와 만족도, 분담 등 세부적인 주제로 가사노동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연숙·한영선·김하늬, 2008). 이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중복적으로, 때로는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별가정의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으로 공공가정에 주목한 이기영 외(2009)의 경우 매일매일의 재생산 및 세대적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으로 돌봄노동을 규정하여, 가족자원경영학에서 통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사노동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과제를 논의한 송혜림(2011)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이고 행위적인 돌봄에 더하여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1)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

가사를 포함하여 돌봄노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돌봄노동은 1인가구의 특성상 의식주생활 관련 세부적인 가사노동과 자기돌봄을 위한 노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취업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 10명을 선정, 심층면접을 통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면접 참여자들의 1인가구로서의 삶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둘째, 돌봄노동 수행 실태이다. 셋째, 돌봄노동 경험이다.

2명 이상이 함께 사는 다인가구의 경우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부담이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1인가구는 일상적인 돌봄을 혼자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인가구의 삶에 대한 독특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돌봄수행의 경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즉, 1인가구로 살면서 돌봄수행 과정에서 얻게 된 새로운 경험과 인식, 돌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1인가구의 일상적인 생활의 여러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가사노동 그리고 돌봄노동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보다 다양한 대상 그리고 접근법을 통해 확장될 수 있는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년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2020년 현재 1인가구는 31.7%(통계청, 2021a)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청년세대의 경우 20-30대와 중복되는 비율이 높다는 추정과 함께 전체 1인가구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대가 가장 높고(19.1%), 그 다음이 30대(16.8%)로 나타나, 20-30대의 비율이 36% 정도이다(통계청, 2021b).

이와 같이 1인가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1인가구를 주제로 수행되는 연구도 많이 축적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직업,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 외에 1인가구가 된 동기와 자발성, 1인가구로 살아온 기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1인가구의 실태도 달라짐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삶을 분석한 선행연구(정순희·임은정, 2014)에서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을 3개 주제군으로 구분하였다. 즉, '정상적인 삶을 사는 청년다움' 규범, 살기위한 '투쟁자' 되기 그리고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삶의 내용을 포착하였고 그 결과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삶과 구별되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한성민과 이숙중(2018)의 연구에서는 특히 사회자본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웃신뢰, 지역사회 소속감, 문화모임 참여빈도 등의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혼자 사는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서 타인과의 소통, 상호작용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청년 1인가구의 현황과 인식을 살펴본 연구(최효미·김지현, 2018)에 의하면 청년 1인가구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독립의 이유보다는 주로 학업이나 직장과 같은 이유가 주를 이루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우에 이에 대한 선호가 더 뚜렷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청년 1인가구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에 있어 다인가구 청년 구성원과의 차이를 연구한 김세영(2018)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우울은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자존감과 주관적 행복감의 경우 청년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 생활만족도 역시 가족관계 만족도에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인가구에게 있어 여가의 의미를 포착한 선행연구(송혜림, 2020b)를 보면, 청년 1인가구에게 여가는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기회 그리고 돌봄과 결합되는 여가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청년 취업 1인가구와 관련하여 일과 여가 균형을 연구한 양지명과 정영금(2019)에 따르면 청년 취업 1인가구의 일-여가 균형수준의 평균점수는 7점 만점기준 3.84점(SD=1.12)로 나타나, 다소 일 중심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 1인가구에게 노동시간, 업무량의 일 관련 특성은 일과 여가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여가시간을 조사한 송혜림, 강은주와 김민주(2018)의 연구 결과 청년 1인가구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은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기타 여가활동', '교제활동', '여가관련 이동', '스포츠 및 레포츠'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미혼 취업 1인가구의 일-생활 균형을 분석한 선행연구(송혜림·강은주, 2021)에서는 청년세대 1인가구의 경우 다른 세대와 달리 가족돌봄의 부담보다는 자신의 건강, 개인관리, 타인과 함께 하는 취미와 여가 등이 일생활 균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심층면접을 통해 1인가구의 가족자원관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분석한 서지원과 송혜림의 연구(2018)에서는 '혼자 놀고, 혼자 먹는' 1인가구의 행태에 주목하며, 여가활동을 혼자서 하는지, 혹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1인가구의 생활실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2. 청년 1인가구의 돌봄 및 가사노동 관련 선행연구

먼저 이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을 가사노동과 동일한 용어로 규정한다. 가정학 및 가족자원경영학 분야에서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연구동향을 정리한 선행연구(송혜림, 2021)에서는 가사노동, 돌봄노동과 관련된 여러 선행 사례를 검토하면서 돌봄노동을 가사노동과 동일하게 범주화하고 있다. 돌봄노동, 가사노동의 변화과정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송혜림, 2021; 기은광, 2021; 송혜림, 2020a; 서지원, 2020)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재생산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은 수행 주체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주요 기제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돌봄노동이 그 행위 주체자의 삶과 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취업한 청년 1인가구의 돌봄노동 수행 실태 그리고 경험을 통해 이들 집단의 삶의 특성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로 세대별 가사노동의 시간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서지원 · 기은광 · 고선강, 2021)의 경우 가사노동의 하위영역을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을 보고 있다. 청년 세대의 가사노동시간에서 20년간 여성의 경우 66분 감소한 반면, 남성은 15분 증가하였다. 청년여성의 경우 전 시기에 걸쳐 대략 80%가 가사노동에 참여하며 약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청년남성의 참여율은 45%에서 59%로 증가하였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청년여성은 가정관리영역 대부분에서 시간을 덜 사용하고 미성년가구원 돌봄 영역에서만 약간의 증가를 보였지만, 청년남성은 가정관리와 가족돌봄 두 영역 모두 유의하게 시간을 더 사용하였다.

청년세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추이를 살펴본 서지원의 연구(2020)는 한국사회 20-30대의 가사노동시간 사용에서 유의한 변화를 포착하여 제시하였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청년 세대의 평일 가정관리시간은 감소하였고 가족돌봄시간은 늘어나다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감소폭은 줄어들었고, 그러나 가정관리시간은 감소 그리고 가족돌봄시간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청년과 중년, 노년 1인가구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한 선행연구(서지원 · 송혜림, 2018)에서도 1인가구의 가사와 자기돌봄을 분석하고 있는데, 청년과 중년 그리고 노년 모든 세대에서 가장 힘든 가사노동으로 무거운 물건 옮기기, 택배 물건 받기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식사를 둘러싼 조건 그리고 인식에서, 청년 1인가구의 경우 좁은 주거공간으로 인한 제약이 식사준비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그 결과 혼밥, 외식, 가공식 사용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이 연구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요소이며, 따라서 주거공간과 돌봄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1인가구가 되기 전과 후의 돌봄노동 경험을 비교한 송혜림(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가사노동 시간량은 많지 않은 편이고 어려운 항목은 요리와 생활

비 관리, 귀찮은 항목은 청소와 정리정돈, 세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좁은 주거환경이라는 제한이 가사노동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시간이나 돈, 가사노동수행능력과 같은 자원이 가사노동수행에 중요하다는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인가구로서의 독립을 위해 가사노동 수행은 필수적인 준비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인가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집단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취업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돌봄노동 수행 실태 그리고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여 질적 연구 방법의 사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현재 취업을 한 20-30대의 청년 1인가구 가운데 10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취업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바, 규칙적인 취업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집단을 선정하였다.

둘째, 연령대별 1인가구의 비율을 보면, 20-30대의 1인가구가 36% 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통계청, 2021b) 선행연구에서 20-30대를 청년 세대로 범주화하는 바, 이 연구에서는 20-30대 미혼 집단을 선정하였다.

셋째, 연구윤리를 고려해 취업 청년 1인가구 중 본 연구 실시 및 진행을 위한 심층면접에 동의한 1인가구를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및 방법

심층면접 참여자를 선정한 다음, 면접을 통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첫째, '1인가구의 전반적인 생활 관련', 둘째 '돌봄 실태' 그리고 셋째 '돌봄 수행의 경험'이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사항에서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근무기간, 월평균 소득, 직업에 대한 만족도의 연구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들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1인가구의 전반적인 생활 관련해서는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과 1인가구로 살게 된 이유,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정도, 현재 1인가구 생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인 취업 청년 1인가구의 돌봄실태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돌봄노동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즉, 돌봄의 소요시간, 어려운 항목과 귀찮은 항목, 불편함, 돌봄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자원 등 실제적으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사항

사례	성별	연령	거주 지역	학력	직업	근무기간	월평균소득 (만원)	직업에 대한 만족정도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	1인가구가 된 이유
A	여성	31세	울산	대학원 졸업	연구원	2년 6개월	290	만족	2년 6개월	타지역 취업으로 인해
B	여성	34세	울산	대학교 졸업	자영업자	2년 1개월	660	아주 만족	9개월	부모님과 사소하나 짝은 마찰과 독립에 대한 로망
C	여성	26세	서울	대학교 졸업	IT 프로젝트/서비스 기획자	10개월	370	만족	5년	타지역의 대학교 입학
D	남성	31세	서울	대학교 졸업	개발 매니저	2년	350	만족	3년	취업 및 독립의 필요성
E	남성	33세	울산	대학교 중퇴	경찰 공무원	8년	300	보통	7년	부모님의 귀농 및 독립
F	남성	27세	경기도	대학교 졸업	카페 매니저	2년	265	만족	4년	가족들의 이사 및 직장 근처로 이사
G	여성	32세	서울	대학원 졸업	사무직 직원	4년 5개월	200 이상	보통	4년 9개월	직장으로 인해
H	남성	31세	경기도	대학교 졸업	판매직 직원	3년	240	만족	3년	직업으로 인해
I	여성	34세	울산	대학교 졸업	판매업 아르바이트생	1년 6개월	45	만족	3년	타지역 취업
J	남성	30세	서울	대학교 졸업	간호사	8개월	300	불만족	9년	타지역으로 진학

로 돌봄을 수행하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에 대한 경험에서는 1인가구로서 돌봄을 수행에 대한 인식 변화, 돌봄 수행에서 얻게 된 새로운 경험, 돌봄 수행의 표준 그리고 삶에서의 인식변화 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질문지를 구성한 후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는 연구의 목적 등 관련 내용의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 및 녹취 또는 기록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참여자와 면접자 간 1:1 소통으로 이뤄졌으며 총 10사례 가운데 일곱 사례의 경우, 직접 만나 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었고, 세 사례는 화상 프로그램을 이용해 면접을 실시하였다. 녹취에 동의하지 않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면접을 하면서 동시에 기록을 하였다. 면접이 종료 된 이후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할 때는 화상 프로그램 또는 서면을 통해 면접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심층면접 진행완료 후에는 연구참여자들 각각의 면접에 대한 녹취와 기록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 및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1인가구의 돌봄수행 그리고 그 경험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을 분류하면서 몇 가지 소주제로 구분하였다.

IV. 연구결과

취업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1인가구로서의 전반적인 생활 그리고 돌봄 수행 상태, 돌봄에 대한 경험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로서의 생활 전반

1) 1인가구로 살게 된 다양한 동기

열 사례 연구참여자들이 1인가구로 살게 된 이유는 취업이나 직장으로 인해 또는 대학 진학과 부모님의 귀농으로 인한 독립, 가족들의 이사에 따라 본인의 직장 근처로 거쳐 마련, 부모님과 사소하게 짝은 마찰과 독립에 대한 로망이라는 상황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열 사례 중 다섯 사례는,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선택이 본인의 의지 등 자발적인 선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구성원들로부터 떨어져 혼자만의 편안함 등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과 관련 독립의 로망이나 독립의 필요성이 본인 스스로 1인가구의 삶을 선택하게 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D: 취업을 하게 되면서 독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어요. 혼자만의 편안함... 혼자 살면 식사라든지, 외출, 휴식 등등 자유로울 것 같고... 그래서 취업과 동시에 독립을, 제가 위해서 스스로 1인가구로 살게 된 것 같네요.

사례F: 저희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되면서요, 사실, 따라갈 수도 있었는데, 혼자 살고 싶고... 또,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어차피 혼자 살 거라서 독립..

사례B: 부모님과 함께 살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관리 아래 자주 사소한 일들로 싸우고 부딪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혼자 살면 어떨까? 혼자 살면 좋겠지? 혼자 살고 싶은데...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독립을 하고 싶어서..

사례I: 타지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요. 그 때가 1인가구 생활시작이었고, 그 일을 그만두고

다시 울산으로 오게 되었지만... 본가 말고... 그냥 가족들 신경 쓰지 않고 저만의 시간을 계속 누리고 싶어 계속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특히 1인가구로서의 삶을 위해 타지역으로 직장을 선택한 사례도 있었다.

사례G: 혼자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타지역으로 선택했구요.

2) 생활 만족의 주요 원인: 자유, 편안함, 자율성

이렇게 1인가구의 삶을 시작한 참여자들 대부분은 처음 1인가구로의 생활을 시작했을 때 보다 현재의 삶이 더 좋고 지금에 이어 앞으로도 1인가구로 계속 지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D: 앞으로도 1인가구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1인가구 시작했을 때는 돈을 벌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직장을 다닌 이후부터는 대출과 융용자금을 이용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상태여서 공간이 주는 만족감이 가장 큼니다. 넓어진 주거공간에다 가구도 채울 수 있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청소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고..

사례A: 현재의 삶이 좋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지내는 공간이지만 부모님의 집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데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저의 공간을 제가 즐겨워하는 것으로 꾸미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즐겁습니다.

사례F: 1인가구의 삶이... 원래 절반은 원했던 삶이고... 지금도 혼자 사는 것의 자유로움과 편리함이 좋아서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당분간 결혼 생각도 없고 꼭 결혼한다는 생각도 없어서요. 지금은 돈을 조금 더 모아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거, 로봇청소기와 세척기 같은 가전제품들을 사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는 거? 이 정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례J: 현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1인가구로 계속 살고 싶고요. 결혼은 생각이 없는데, 연인과 동거를 할 상황이 된다면 고려해 보긴 할 것 같네요. 다만, 주거형태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사례B: 기존 부모님께 함께 지내며 많은 부분을 지원받으며 살았습니다. 독립을 하며 식사부터 세탁, 살림, 등 많은 것을 스스로 해 나가면서 보다 더 주체적인 삶을 사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인가구로 계속 살 예정이고요.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일로 인해 거주 지역을 서울로 옮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1인가구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여부는 '편안함', '자유로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되는 공통된 내용이다(송혜림·강은주, 2021).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생활패턴에 간섭하는 이가 없으며 나 자신 이외에는 누구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자유롭고 주거공간을 자신이 원하는대로 꾸밀 수 있다는 점이 1인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여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례B: 아주 만족합니다. 태어나서 첫 독립으로! 독립을 하여 제 스스로 많은 것들을 결정해나가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1순위로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가구부터 가전, 주방잡기, 식품까지 스스로 선택해 살림을 꾸려나감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례I: 가족들의 귀가시간이 워낙 제각각에 생활패턴이 달라서 힘든 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해소된 게 만족스럽고 혼자 생활하는 게 확실히 자유롭고 편합니다.

사례D: 만족합니다. 혼자의 편안함과 어떤 선택들... 식사, 외출, 휴식 등등 이러한 선택들에 대해 자유로움이 가장 크고 친구들 또는 연인을 언제든 집에 초대할 수 있으니까요.

사례J: 수면시간, 출퇴근시간, 식사시간 등등 저만의 생활패턴을 유지할 수 있고요. 혼자 살다보니 저만 신경쓰면 되고, 타인을 배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족해요.

사례C: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 제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미며 저를 표현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요.

이와 같은 1인가구 생활의 만족스러운 부분들은 현재 1인가구로서의 좋은 점들로 이어지고 있다. 안정된 나만의 공간에서 내 취향에 맞게끔 공간을 꾸밀 수 있으며 청소와 세탁, 식사와 같은 살림 등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의 생활패턴에 맞춰 꾸려나갈 수 있다는 점이 1인가구 생활의 장점으로 꼽혔다. 1인가구의 삶은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나 자신을 중심으로 본인 위주의 생활패턴에 맞춰 돌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온전히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1인가구 생활의 좋은 점으로 나타났다.

사례D: 자유로운 휴식과 제 취미생활을 제 공간에 채울 수 있고요. 저만의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살림들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사례: 제 생활패턴(청소, 세탁, 식사 등) 관련해 제가 하고 싶을 때 해도 됩니다. 또 불필요한 소음(말, 통화, TV소리 등)이 없어서 좋습니다.

사례F: 먹고, 자고, 쉬고 모든 일을 내가 편한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도 없었고요.

3) 경제적 부담과 식생활의 어려움

한편, 현재 1인가구의 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식재료비, 음식배달비, 전기 및 가스비, 월세 등과 같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적인 측면, 식사준비 및 음식섭취 등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경우,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 식사 준비 및 섭취의 어려움 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서도 식비(식재료비, 음식배달비 등)와 음식만들기, 식사 섭취 등 식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사례F: 제일 어려운 거는... 밥 차리는 거? 사실, 이걸 못 해서라기보다는 저 먹자고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매우 번거롭습니다. 식재료 사서 정리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에 덧붙여 정리, 쓰레기처리까지 생각하면 일이 생각보다 많아요. 두, 세사람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혼자 먹을 때는 이 모든 일에서 가성비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사례A: 요리를 위해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필요한 만큼 구입을 하면 단가가 비싸고 대용량으로 구입하면 음식을 다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배달을 시켜먹기에도 비싸고 날이 갈수록 배달비용이 비싸져 더욱 부담되고 있습니다.

사례D: 생활비에 지출이 크고...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1인 단위의 재료 구매 및 배달음식 주문이 어렵습니다. 유통기한이나 최소 주문금액이나...

사례J: 혼자 사는 지금이 본가 있을 때보다 식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사례C: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 양이 애매해서 금액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사례B: 요리 실력이 미흡해 종종 본가에 가서 반찬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매일 반복되는 혼자서 하는 식사에 외로움을 종종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식사관련 비용, 식사 준비 및 섭취 등의 현재의 어려움은 1인가구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처음 1인가구를 시작했을 때에는 청소, 쓰레

기처리, 가구조립 및 공구사용, 주거공간 수리 등 일상적인 돌봄과 관련해 스스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내야 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 더욱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G: 1인가구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요. 요리를 정말 할 줄 몰라서 사먹거나 그냥 건너 뛰거나 식사를 제대로 챙겨먹지 못했어요.

사례F: 거의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음식 만드는 일! 나 혼자 먹자고 그 많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의 효율성이나, 식재료를 샀지만 그걸 다 쓰지 못하고 버릴 때나, 만들어 놓은 음식을 나중에 먹겠다고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대부분은 못 먹고 버리고마는... 결국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례C: 처음 1인가구 시작했을때요?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례B: 큰 가구가 들어오면서 조립을 하고 설치를 할 때, 혼자라 시간이 2배로 걸리는 부분이 힘들었어요. 비용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가구를 조립식으로 구매해 설치를 했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공구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큰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사례D: 1인가구에 맞춰 식재료를 구매하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집에 제가 없으면 아무도 없다는 점도 많이 불편했고요. 타지로 나가있는데, 화장실 수도관이 터져 급하게 다시 올라왔던 기억도 있고요.

1인가구에게 있어 그 시작과 현재의 어려움 중 돌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취업 청년들이 보다 만족스러운 1인가구의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돌봄노동 수행의 실태 그리고 경험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일상적인 돌봄 수행 실태

연구참여자들이 날마다 수행하는 돌봄노동 수행 실태를 파악하였다.

1) 주중보다는 주말에 집중되는 돌봄노동, 주된 항목은 음식준비와 의류관리

우선, 돌봄 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전체 시간을 보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주중(하루 평균) 짧게는 30분, 길게는 2~3시간을 돌봄노동에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확실히 주중보다는 주말에 돌봄 수행에 집중하는 경우가 높았다. 주말(하루 평균)의 돌봄노동시간은 짧게 1시간 30분, 길게는 4시간 정도까지

시간을 사용하고 있어 직장생활 등이 이뤄지는 주중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주말동안에 돌봄 노동을 거의 한 번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A: 퇴근 후 시간 중 3분의 1은 돌봄노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중해서 돌봄노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주말에 3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사례B: 주중 하루 평균 1시간씩, 주말은 토, 일요일 중 하루 5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례C: 사실... 가사노동의 경우... 거의 주말에 몰아서 합니다.

돌봄노동 항목별²⁾로 보면, 세부항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여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서도 필수적인 음식준비와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을 일상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음식준비와 청소 및 정리의 경우, 가장 많이 그리고 빈번하게 수행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관리의 경우, 수시로 수행하거나 또는 세탁 및 건조, 다림질까지 시간 소요가 많아 주말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F: 음식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청소는 수시로 더러울 때마다 간단히... 그리고 매주는 아닌데, 필요할 때에는 주말이나 휴일에 대청소를 합니다. 세탁은 수시로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스타일러를 사는 것이 1순위 소망입니다.

사례B: 가사노동 종류? 분야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른 것 같고요. 음식준비랑 청소에 시간을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는 크게 주방청소, 화장실청소, 실내청소로 나누고 세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돌봄노동의 어려움, 난이도보다는 귀찮음과 번거로움 그리고 비효율성

돌봄 관련 세부항목 가운데 어려운 항목과 귀찮은 항목이 거의 일치되고 있었다. 청소 및 정리의 쓰레기 분리 및 버리기

(사례H, 사례C, 사례A)와 의류 관리(사례E, 사례D, 사례B), 음식준비(사례G, 사례J) 등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동시에 귀찮은 항목 역시 청소 및 정리(사례D, 사례G, 사례C, 사례B), 음식준비(사례I, 사례J), 쓰레기 분리 및 버리기(사례H)로 나타나 돌봄노동 수행에 있어 어렵거나 귀찮은 세부 항목들이 거의 동일하고, 이러한 점이 돌봄노동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1인가구가 되기 전의 생활처럼 가족구성원들이 모두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모든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성이 돌봄노동 수행에 대한 어려움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사례J: 음식준비 등등 생각을 해보면은요. 준비부터 수행을 마무리하기까지 분업 없이 혼자서 제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비효율적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B: 1인가구라 모든 돌봄노동을 혼자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업무량이 많아지면 귀가 늦어지고 청소, 구매, 기타 가정관리 항목이 계속 수행되어지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주말에 주중에 놓친 부분들을 몰아서 하기도 하고요.

3) 돌봄수행에 있어 자원의 제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은 가족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

연구참여자들이 돌봄을 수행할 때 시간적 제약이 돌봄수행의 장애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취업한 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은 일들을 해결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등기우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은행이나 세무서 등에서 대면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물론 1인가구가 아니라도 취업한 집단은 출근하여 일하는 동안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1인가구의 경우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제한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사는 친구의 지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살아야 지원이 가능한 물리적 조건, 그리고 믿을 만한 친구여야 한다는 관계적 조건이 함께 작동한다.

사례F: 가까이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저 또한 그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긴다거나, 택배를 대신 받아준다거나 출장을 갔을 때 우편물 정리해주는 등, 가끔은 세일하는 상품을 사서 나누기도 합니다.

사례D: 중요한 택배나 등기 같은 것은 누군가 집에 있어야 하니깐, 아무에게나 부탁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저는 다행히도 같은 단지에 친구가 있어서 운이 좋은 편이죠 사실 처음 독립할 때 그 친구가 있는 가까운 곳에 나도 살아야겠다

2) 돌봄 관련 세부 항목으로는 음식준비(식사준비, 간식·비일상적 음식 만들기, 설거지·식후정리), 의류관리(세탁하기, 세탁물 건조, 다림질 및 옷 정리, 의류 수선 및 손질), 청소 및 정리(청소, 정리, 쓰레기 분리 및 버리기),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주거 관리, 가정용품 관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련 서비스 받기), 차량 관리 및 유지(차량 관리하기, 차량 관련 서비스 받기),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반려동물 돌보기, 식물 돌보기, 반려동물 및 식물 서비스 받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상품 매장 쇼핑, 상품 온라인 쇼핑, 서비스 현장 구입, 서비스 온라인 구입, 기타 쇼핑 관련 행동), 기타 가정관리(가게 예산, 가정 계획 수립 활동, 금융기관 이용, 관공서 등 이용, 기타 가정관리 관련 행동)가 있다.

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참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시간의 제약이라는 자원의 부족은 식사준비와 청소, 세탁 등 세부적인 돌봄노동 수행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 가족, 주로 어머니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례E: 어머니께서 한 번씩 음식을 해서 주시고 청년월세 지원을 매달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사례B: 식사준비와 관련해 어머니께서 많은 부분을 도와 주고 계십니다. 한 달에 1-2회 반찬, 식자재 등을 보내주시고요.

사례A: 본가로부터 식재료 등을 대량으로 구입할 때 나눔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금전적으로 힘들 때도 도움을 받습니다.

1인가구가 혼자서 돌봄을 수행해야 하나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 등이 굉장히 한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 청년 1인가구의 돌봄 수행을 위한 활용가능한 자원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돌봄수행의 경험

돌봄노동 수행 실태와 별도로, 일상적으로 혼자 돌봄을 수행하면서 경험에 주목하였다. 1인가구가 되기 전과 비교할 때 돌봄노동에 대해 새롭게 인식된 점, 그 경험의 독특한 점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경험이 취업청년 1인가구의 일상생활의 변화에 미친 영향 등을 파악하였다.

1) 돌봄노동은 독립을 위한 필수조건, 내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 갖기

연구에 참여한 열 사례 모두, 1인가구가 된 이후 혼자 수행하는 돌봄노동을 통해 돌봄에 대한 인식에서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돌봄을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비로소 독립을 했다고 느끼는 경험이 많이 발견되었다.

사례A: 본가에서 생활할 때는 제가 돌봄에 주체적인 입장이 아니었고 그래서 부수적인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는 1인가구로 생활하면서 제 일상에 필수적인 일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례E: 귀찮고 어렵지만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니 잘 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최소한도로 꼭 해야 하는 일이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F: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 날마다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먹고 빨래방 이용하고 그러면서 기계나 기기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가사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돌봄은 1인가구로서 독립을 위해 혼자서 꼭 해야 하고, 동시에 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F: 돌봄은 혼자 살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거나 도움없이 못 산다면 이것이 독립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사례E: 혼자 산다면 돌봄은 나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기계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사례G: 돌봄을 수행하면서 1인가구로서 독립에 가사노동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어요.

1인가구 이전 생활에서는 대부분 돌봄노동은 가족 특히 어머니에 의해 이뤄졌고 1인가구가 된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돌봄노동을 해야 하므로, 우선은 돌봄노동 수행의 주체로서의 변화가 부각된다. 즉 이전 생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몰랐던 부분들을 1인가구가 된 이후에는 직접 돌봄 노동을 수행하며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재 1인가구로서 돌봄에 대한 경험에서, 돌봄이 늘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공간을 위해 주체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인식이 부각되고 있다.

사례D: 내 것이기에 더 신경써서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례E: 어머니께서 일도 하시면서 가사일을 척척해내셔서 해야 될 게 많다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자취를 시작하면서 모든 부분을 혼자서 해보니 결코 쉽고 간단한 일들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 살림이니 까 잘 해야죠.

사례E: 내가 내 공간을 정리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못한 공간에서 지내야 하니까 제 때 해야 될 일이 돌봄이라고 생각되고요. 처음에는 힘들고 낯설지만 익숙해지면 다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들은 1인가구로서 돌봄은 혼자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내야하고 깨끗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하고 잘해야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내 공간의 주인으로서의 자율성과 자부심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2) 주로 자원의 제한성과 연결된 돌봄 수행 만족도

연구참여자들의 돌봄 수행 만족도를 보면, 열 사례 가운데 확실하게 만족스럽다고 한 경우는 한 사례이며, 나머지 사례들의 경우, 인적·물적자원의 제한 그리고 사회적 자원으로써 제도적 지원의 부족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먼저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불만족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사례B: 돌봄노동 관련 한 항목이라도 손을 덜 수만 있다면..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1인가구용 식기세척기와 로봇청소기 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은 들겠지만요. 아직은 수입이 적어서 결국 돈의 문제...

사례E: 가사업무 자체를 즐기지는 않는데요. 필요하거나 꼭 해야 하는 부분이라 별 생각은 없지만 모든 부분이 자동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도 줄이고... 근데 비용부담도 생각해야겠죠.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돌봄에 대한 지원, 즉 사회적 자원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사례A: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인가구로서 집을 수리하고 먹을 음식을 마련하고 방법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사회적 자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례J: 인적자원의 도움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전제품들로 시간들을 줄이고 싶습니다.

사례C: 그냥 전체적으로 세금이 줄었으면 좋겠고요. 가정관리 관련 서비스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례H: 일을 마치고 몸이 피곤하면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청소, 세탁, 쓰레기 처리 등등, 그럴 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봄 수행의 어려움들이 결국 돌봄 수행의 불만족으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돌봄 수행과 관련 모든 부분을 혼자서 해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 다거나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수행 시간을 줄이고 싶은 요구와 바람이 있다. 동시에 돌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월성, 경제적부담의 경감 등에 대한 요구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3)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소한 일에서 중요한 일로, 과소평가에 대한 생각 바꾸기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돌봄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돌봄이 사소하게 보이지만 하루하루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사례I: 가사일을 그러니까 청소, 세탁, 음식준비 등을 굉장히 단순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니 음식을 하려면 장을 봐야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한다해도 널고 개고 서랍에 정리까지 해야 하고... 세세하게 할 게 많았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밖에서 일하는 거 만큼 하루종일 부지런히 움직여야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례D: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돌봄은 단순하고 사소하나 참여자들은 1인가구로서 이를 직접 수행해보며 비전문적이기보다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과정을 거치며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느끼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사례B: 살림의 고수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는지 알게 되었다니까요. 처음 1인가구를 시작할 때는 막연히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청소와 정리부터 세탁, 세탁물 정리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G: 돌봄은 비전문적, 노동 중에서도 낮은 가치가 매겨졌으나, 실상은 몹시 전문적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노동을 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출근해서 수행하는 노동과 대비되는 돌봄노동의 특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도 함께 발견되었다.

사례F: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면서 나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아직은 직위가 높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시키는 일을 하는 수동적인 상태가 많은데, 집에서 하는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나를 돌보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사례E: 일을 하면서 물론 성과라던지 성취감도 있지만, 아직은 그런 것이 크지는 않고, 퇴근 후나 주말에 집에서 음식 만들고 치우고 자그마한 장식물이라도 옮겨놓고 화분에 물 주고 하는 일들은 나름 창의적이고, 직장일과는 많이 다르지요. 간섭도 없고 보고서 안 써도 되고 확인이나 서명도 안 받아도 되고...

한편, 돌봄에 대해 자원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한 경우도 있었다. 시간이나 체력의 부담이 많이 드는 돌봄노동인 만큼 낮은 시급을 기준으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 즉 적절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사례B: 돌봄에는 체력과 시간이 많이 들죠. 체력적, 시간적으로 부담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깔끔하고 잘 정돈된 집이 얼마나 많은 수행시간을 들여야 완성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례C: 돌봄이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는 업무에 비해 과소 평가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급으로 치면 고시급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돌봄 서비스를 저렴하게 받고 싶어하는데... 그것이 조금 루틴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치 구독 금액이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돌봄이 낮은 시급의 업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 몰랐던 부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그리고 일상의 변화

혼자 살면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경험은 1인가구가 되기 전, 가족과 함께 살 때 누렸던 돌봄노동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계기를 준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다.

사례F: 해보기 전에는 몰랐던 일들이 많고, 전에는 요리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머릿속에 많은 식재료들, 도구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돌봄을 직접 해보며 주인의식도 생긴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례G: 돌봄을 직접하다보니 생각보다 돌봄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돌봄도 '아이템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크게 관심이 없던 영역에 직접 제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보니 살림에 관심이 많아졌고 모든 돌봄 활동들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례H: 돌봄은 미루면 안 되고 예전에는 부모님께서 하셔서 잘 몰랐던 것들을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의외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아서 자주 놀랐습니다. 휴지를 다 사용해서 구매해야 하는데 미루다가 잊어버려서 엄청 황당한 적도 있습니다.

사례I: 장을 보고 음식을 하고 끼니 때마다 무엇을 해서 먹는지 고민하는 거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어머니께서 그 동안 정말 고생하셨구나도 느끼게 됐습니다. 집안일은 아무리해도 티가 안나고 쉬운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사례B: 본가에서 지낼 때, 세탁물은 모두 어머니께서 관리해주셔서 몰랐었는데요. 현재는 스스로 의류관리를 해 나

가면서 음식을 먹을 때 옷에 튀거나 하지 않도록 보다 더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1인가구로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돌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도 하였다. 또,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보다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므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 혼자 생활하면서도 돌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B: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주체적인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많은 것을 해내고 있는 저를 보며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사례I: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관념도 생기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을 때는 몰랐던 집안일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더 성장한 느낌이 듭니다.

사례H: 일단은 식사준비, 청소, 세탁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야 독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례G: 자기돌봄 역량 중 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봄의 역량이 부족해 본인 스스로의 삶의 질 관리가 안된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요.

사례F: 혼자 살면서 제대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혼자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주로 해야한다는 점은 분명히 알게 된 다 말이지요.

사례I: 돌봄의 대부분을 혼자서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자립심을 배우고, 앞으로 혼자 살아가는데 있어 경험치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자원, 정보력의 중요함 그리고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실시의 필요

1인가구를 위한 돌봄 관련 지원 및 방안에 대해서는 돌봄을 수행을 위한 자원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정보와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돌봄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식(食)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생활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1인가구로서 생활하기 이전에 요리를 배우거나 1인가구가 된 이후에는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이와 관련된 의견 등이 있었다.

사례: 가사일은 살아가면서 배우면 되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례: 혼자 살면서 돌봄을 수행하면서 느낀 건 돈이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팔아서 일을 하게 되고, 집에 와서도 제 시간을 쏙아 제 삶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례E: 독립하기 전에 요리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돌봄노동은 그냥 하면 하는데 요리는 경험도 필요하고 해 봐야 잘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사례B: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들어가기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1인가구로의 삶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과 살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듯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요리를 만들거나 경제관념과 살림에 대한 지식 등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1인가구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에서 교육적 차원의 내용이 다뤄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몇몇 참여자들의 회사에서는 가족친화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이 중 시간제근무, 정시퇴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이 돌봄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직장을 다니는 1인가구의 경우,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가 더욱 활성화 된다면 이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례E: 회사의 가족친화제도가 제 삶에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돌봄 수행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이러한 좋은 제도는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실시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직장의 시간제근무나 정시퇴근이 돌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사례A: 현재 회사에서 실시하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정시퇴근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은 사용하지 못하나 장기근속휴가 지원, 가족돌봄 휴직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지 않는 제도들도 만약 운영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C: 재택근무제도로 재택근무하는 날은 청소를 할 수 있고 재택근무가 없으면 평일에 세탁을 못해서 조금 그래요.

사례D: 시차출퇴근으로 평일에 관공서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등 기타 가정관리에 대한 수행이 가능해지겠지요.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1인가구 중 취업을 한 20-30대의 청년 1인가구에 주목하여 이들의 돌봄수행 실태와 돌봄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취업 청년 1인가구 열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1인가구의 전반적인 생활과 돌봄노동 수행실태 그리고 돌봄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직장이나 취업, 대학 입학 등 상황에 따라 1인가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1인가구로서의 '선택'은 독립에 대한 로망이나 독립의 필요성 등의 이유가 부각되었다. 독립에 대한 로망이나 필요성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주거공간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으며 어떠한 선택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등 결국 1인가구로의 선택의 이유가 현재 1인가구로서의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와 직접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계속해서 1인가구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일상 생활에서의 자유와 편리함이 만족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음식 만들기, 주거비와 생활비 등의 차원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독립을 시작하기 전 요리를 배우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음식 만드는 것을 연습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돌봄수행 실태에서는 취업이라는 특성 상 주중보다는 주말에 돌봄노동을 집중해서 수행하는 경향, 어려운 항목으로는 쓰레기 분리 및 버리기, 의류 관리, 음식준비가 있으며, 귀찮은 항목은 청소 및 정리, 음식준비, 쓰레기 분리 및 버리기로 나타났다. 날마다의 돌봄노동을 혼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거나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수행 시간을 줄이고 싶은 요구와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인적 자원의 경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돌봄에 대한 경험을 보면, 1인가구가 된 후 혼자 돌봄을 수행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등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돌봄노동의 특성과 관련해 사소하지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영역인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과정에서 전문적이어야 함을 느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은 돌봄노동이 1인가구로서 독립을 위해 꼭 해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봄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분명 어려운 영역임에도 나와 나의 공간을 위해 더욱 신경써야 하는 것이 돌봄이며 돌봄에는 시간 소모나 체력의 부담이 크기에 과소평가가 아닌 적절한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어머니의 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감사함, 돌봄

수행을 통해 갖게 된 주체성, 자립심, 책임감 등 긍정적인 변화를 함께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취업 청년 1인가구의 돌봄노동 실태 그리고 경험을 통해 돌봄노동이 1인가구로서의 독립의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돌봄노동을 수행해 본 경험 그리고 숙련도와 역량 등이 초기 1인가구로서의 삶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식사준비, 의류관리 등의 차원에서 돌봄노동 수행의 부담과 어려움이 함께 포착되었으므로, 1인가구의 초기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 돌봄노동 수행역량 강화가 핵심적인 영역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장에서 초기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혹은 1인가구가 되기 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돌봄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청년 1인가구의 일상적인 돌봄노동 수행에서 시간과 돈, 인적자원, 사회적 자원 등이 어떠한가에 따라 돌봄노동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고 있다. 즉,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근무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소득의 제한 문제가 있고, 취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면하게 되는 시간부족의 문제도 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돌봄노동을 지원하는 제도와 지역사회 서비스 등 사회적 자원도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돌봄노동 수행의 합리화를 통한 시간 절약, 성능이 좋은 가사기기와 로봇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 조건, 돌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품앗이 프로그램과 돌봄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 취업 청년 1인가구의 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자원' 중심으로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시간이나 돈, 가사노동수행능력과 같은 자원이 가사노동 수행에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송혜림, 2021), 따라서 앞으로의 1인가구의 돌봄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자원의 사용과 관리, 자원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등에 집중한 연구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가 스스로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일상생활도 변화하게 되는 과정을 포착할 수 있었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돌봄노동은 그 자체로 행위 주체의 일상생활을 조망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가 된다. 이 연구에서도 돌봄의 경험을 통해 주체성과 자율성, 책임감 등을 갖게 되고, 어머니의 돌봄노동에 담겨있는 정성과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내 삶에 대한 주인의식 등 의미 있는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돌봄노동의 주체가 아닌 삶으로부터 주체로서의 삶으로 전환되면서 갖게 된 새로운 경험이라는 점에서 1인가구가 갖는 독특한 돌봄노동 경험 그리고 나아가 1인가구 삶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족자원경영학에서 돌봄노동에 대한 연구는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갖게 되는 오해와 편견을 밝히고자 하였는데, 예를 들어 돌봄노동은 사소하고, 가치가 없으며, 기계화 및 산업화로 인해 많이 감소되고 주로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편견인지 아니면 실제 사실인지에 대한 탐색이다(송혜림, 2020a). 이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 여성이든 남성이든 돌봄노동은 1인가구로서의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 돌봄노동을 수행하면서 갖게 된 긍정적인 평가 나아가 돌봄노동 수행자에 대한 변화된 인식, 돌봄노동 수행의 주체로서 경험한 자발성, 책임감 등의 내용은 돌봄노동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1인가구 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있어 돌봄노동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 가치에 대한 평가까지 계속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연구가 계속 다양한 주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주제들과 연결시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일견 사소하고 귀찮은 일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돌봄노동이지만, 일상적·세대적 재생산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기은광(2021). 가사노동과 돌봄 시장에 대한 전망과 대처.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1년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2) 김세영(2018). 청년 1인가구의 정신건강과 생활만족도: 다인가구 청년 구성원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2018년도 가정학분야 춘계통합학술대회 자료집.
- 3) 서지원·기은광·고선강(2021). 한국 여성과 남성의 세대별 가사노동시간의 변화(1999-2019):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 시간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정, 25(2), 53-78. DOI: 10.22626/jkfma.2021.25.2.005.
- 4) 서지원·송혜림(2018). 1인가구의 가족자원관리와 일생활 균형. 대한가정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5) 서지원(2020). 청년세대 가사노동 시간사용의 변화.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0년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6) 송혜림·강은주·김민주(2018). 청년 1인가구의 생활시간 사용 연구: 성별·취업여부에 따른 식사와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2), 45-63. DOI: 10.22626/jkfma.2018.22.2.003.
- 7) 송혜림(2011). 가족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세미나 자료집.
- 8) 송혜림(2020a). 청년 1인가구의 가사노동. 한국가족자원경

- 영학회 2020년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9) 송혜림(2020b). 청년 1인가구의 여가생활과 여가의 의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4), 21-37. DOI : 10.22626/jkfma.2020.24.4.002.
- 10) 송혜림(2021). 코로나시대 가사노동과 돌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21년도 온라인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
- 11) 송혜림 · 강은주(2021). 취업 1인가구의 일-생활 균형 : 20-30대 미혼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정책, 25(4), 55-70. DOI : 10.22626/jkfma.2021.25.4.005.
- 12) 양지명 · 정영금(2019). 청년 취업 1인가구의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 17-40. DOI : 10.22626/jkfma.2019.23.2.002.
- 13) 이기영 · 조희금 · 조영희 · 송혜림 · 정지영(2009). 공공가정경영-비영리기관 운영관리에의 적용. 서울 : 신정출판사
- 14) 이연숙 · 한영선 · 김하늬(2008).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동향분석 : 가정학 관련 주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59-176.
- 15) 정순희 · 임은정(2014). 청년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1-19.
- 16) 최효미 · 김지현(2018). 청년 1인가구 현황 및 청년층의 1인가구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 2018 가정학분야 춘계통합학술발표대회 자료집.
- 17) 통계청(2021a). 인구주택총조사.
- 18) 통계청(2021b). 인구주택총조사.
- 19) 한성민 · 이숙중(2018).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1), 60-85.

- 투 고 일 : 2022년 09월 23일
- 심 사 일 : 2022년 10월 13일
- 계 재 확 정 일 : 2022년 11월 23일